

윤석민, 이렇게만 가자

트리플A 5이닝 무실점 호투... 팀은 0-3 패

윤석민(볼티모어)이 미국 진출 이후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다.

트리플 A 노포크 타이즈에서 박리그를 준비하고 있는 윤석민이 30일 콜럼버스 클리퍼스(클리블랜드 산하)와의 홈경기에 등판해 5이닝 2피안타 3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기록했다. 0-0의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와 승패는 남지 않았다. 팀은 0-3으로 패했다.

29일 예정됐던 등판이 우천 순연되면서 윤석민은 이날 더블헤더 첫 경기 선발로 나섰다.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패조의 스타트였다. 경기 시작과 함께 두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운 윤석민은 3루수 파울플라이를 더해 삼자범퇴로 첫 이닝을 소화했다.

2회를 중견수 플라이로 시작한 뒤 카를로스 몬 크리프의 1루수 앞 땅볼 때 직접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이어 유격수 땅볼과 함께 2회도 삼자범퇴로 마무리했다.

윤석민이 3회 선두타자 맷 카슨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며 첫 주자를 내보냈다. 중견수 실책까지 겹치면서 무사 2루. 하지만 로베르토 페레즈를 투수 앞 땅볼로 처리한 뒤 좌익수 플라이와 2루수 땅볼로 실점 없이 3회를 넘겼다.

4회 제구가 다소 흔들렸다. 저스틴 셸러스를 볼넷으로 내보낸 윤석민은 1사에서 다시 볼넷을 기록하며 1사 1·2루의 위기에 몰렸다. 3루수 데이비드 애덤스가 어려운 파울 플라이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원아웃을 챙겨줬지만 유격수 이반 데헤수스의 땅볼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야안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윤석민은 3개의 공으로 맷 카슨을 벤치로 돌려보내며 위기를 넘겼다.

윤석민은 5회 다시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우익수 플라이 아웃에 이어 호세 라미레스를 상대로 4-6-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유도하며 실점없이 마운드를 내려왔다.

윤석민은 5회까지 79개의 공을 던졌고 스트라이크는 49개, 볼은 30개를 기록했다. 앞선 등판보다는 볼 비율이 높았지만 좌우 코너워크를 잘 활용한 승부로 상대 타선을 요리했다.

이날 호투로 윤석민의 평균자책점은 6.75에서 5.24로 낮아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출루머신 재가동

추신수, 오클랜드전 4타석 출루... 팀은 패

9일 만에 선발 출전한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100% 출루로 복귀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추신수는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서 1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몸에 맞은 공 1개, 볼넷 2개, 안타 1개를 기록하고 4타석 모두 1루에 나갔다.

추신수의 타율은 0.310에서 0.319(72타수 23안타)로, 출루율은 0.427에서 0.452로 크게 올랐다.

그러나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2위 텍사스는 추신수의 전타석 출루를 살리지 못하고 3-9로 패해 3연패에 빠졌다.

지구 선두 오클랜드와의 승차는 2경기가 벌어졌다.

21일 오클랜드와의 원정경기에서 1루를 밟다가 왼쪽 발목을 삐끗해 6경기 연속 벤치를 지킨 추신수는 28일 대타로 출전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뒤 이날 곧바로 지명 타자로 타선 꼭대기에 이름을 올렸다. 추신수는 첫 대결부터 오클랜드 왼손 선발 투수 스콧 카즈미어를 괴롭혔다.

볼 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서 9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몸에 맞은 공으로 걸어나갔다.

오른쪽 팔뚝에 공을 맞은 추신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와 내외 1루로 향했다.

3회에도 볼넷을 얻은 추신수는 5회 무사 1루에서 카즈미어의 직구를 받아쳐 우익수 앞으로 날라롭게 뻗어가는 안타를 날렸다.

올 시즌 안타 10개를 왼손 투수에게서 뽑은 추신수는 좌완 투수 상대 타율을 0.417(24타수 10안타)로 끌어올렸다.

후속타자 타석에서 카즈미어의 폭투 때 발목 통증에도 전력 질주해 슬라이딩으로 2루에 안착한 추신수는 2사 후 프린스 필더의 짧은 좌전 안타 때 홈을 과감하게 파고들어 득점을 올렸다.

7회에도 볼넷을 고른 추신수는 대주자로 교체돼 더그아웃으로 들어왔다.

무패 행진을 벌인 왼손 투수끼리 맞대결에서 텍사스 선발 마르틴 페레즈가 먼저 무너졌다.

1회 장타 2방을 얻어맞아 2점을 내준 페레즈는 1-4로 뒤진 5회 무려 5실점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지난 3경기에서 이어오던 26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도 마감했다.

카즈미어는 시즌 4승(무패)째를 수확한 반면 페레즈는 첫 패배(4승)를 안았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의 안치홍이 지난 2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와 경기에서 4회말 무사 1루에서 120m 투런홈런을 치고 들어온 뒤 김주형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홈런을 쳐도 눈물이 난다

안치홍·김주형·이범호 등 최근 페이스 상승

선발·불펜 난조로 번번이 역전패 허용

KIA 타자들이 홈런을 치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

팀 홈런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KIA 타자들의 홈런 페이스가 나쁘지는 않다. 안치홍이 지난 29일 투런포를 쏘아올리는 등 SK전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고, 돌아온 김주형도 지난 27일 경기에서 시즌 두 번째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이범호와 나지완도 아쉬운 대로 3개·2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체면치레는 했다. 문제는 치고도 웃지 못하는 팀 상황이다. 장타가 살아난 안치홍은 지난 18일 문학 원

정에서 시즌 마수걸이포를 가동시킨 뒤 19일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 29일 다시 만난 SK, 그것도 김광현을 상대로 좌중월 담장을 넘기며 같은 팀을 상대로 세 경기 연속 홈런을 만들었다.

하지만 안치홍의 홈런은 SK의 1이닝 11득점, 정상호의 7타점쇼에 묻혔다. 선발 한승혁이 일찌감치 무너지면서 1-7의 상황에서 나온 투런포. 분위기를 살릴 수도 있는 한방이었지만 5회 끝임없이 홈에 들어온 SK의 주자들에게 안치홍의 홈런은 빛이 발했다. 앞선 시즌 첫 홈

런도 1-5의 상황에서 추격의 불씨를 담기는 투런포였지만 선발 난조와 불펜의 추격 허용으로 팀은 4-6패를 당했다.

김주형도 극적인 한방을 쏘아올리고도 경기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 지난 27일 잠실에서 전개된 LG와의 경기. 예상 밖으로 KIA 임준섭과 LG 리오단의 투수전이 전개되면서 7회까지 양팀의 주자가 홈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때 김주형의 한방이 터졌다. 김주형이 8회 리오단을 상대로 시즌 두 번째 안타를 홈런으로 넘기며 두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습막하는 0의 균형을 깨트린 홈런이었지만 이어진 8회 불펜진의 난조로 1-2로 역전을 당하면서 홈런의 여운은 1이닝도 가지 못했다.

처져야 할 이범호·나지완의 홈런이 나왔던 5경기에서 KIA가 승리한 경기는 4경기. 극심한 투·타의 불균형에 홈런을 치고도 웃지 못하

고 있는 야수진이다. 또 다른 고충도 있다. 길고 긴 수비 시간으로 이치고다.

1이닝 11실점을 기록한 SK전에서는 한 회에 15명의 타자가 타석에 서고, 11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야수진들은 3개의 아웃카운트를 잡느라 30분이 넘는 시간을 그라운드에서 있었다.

지난 30일 덕아웃에는 “3시간30분 경기에 3시간 수비를 한 것 같다. 심판들도 안쓰러운지 공수 교대 때 천천히 타석에 나와도 된다고 하더라. 방망이 들 힘도 없었다”는 쓴 농담이 나왔다.

KIA 올 시즌 한 이닝에 4점 이상을 내준 경기는 무려 11차례에 이른다. 투·타의 불균형과 선발과 불펜의 엇박자에 KIA는 잔인한 4월을 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안타 칠 때마다 야구 꿈나무 ‘꿈 쑥쑥~’

안치홍-초록어린이재단 후원 협약

KIA 타이거즈 안치홍의 선행은 계속된다. 안치홍이 지난 30일 SK전에 앞서 초록유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밝은안과21병원과 ‘야구 꿈나무 인재 양성 1안타 1도루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안치홍은 올 시즌 1안타 및 1도루당 각각 2만원을 적립해 시즌 종료 후 어린이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6년째 계속되는

희망나눔이다.

안치홍은 프로야구 입단 첫 해인 2009년부터 야구 꿈나무들이 야구에 대한 열정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1안타 1도루 후원 협약’을 맺고 후원 활동을 해왔다. 본인이 먼저 나서 시작했던 선행, 지난해부터는 적립금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더 큰 희망을 쌓고 있다.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병원도 지난 2009년부터 안치홍의 성적에 따라 적립금을 조

성해 힘을 보태고 있다.

안치홍은 “후원 협약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야구 꿈나무도 돕고, 나 스스로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며 “야구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시즌 안치홍은 103안타, 16도루를 기록하며 238만원을 적립했다. 밝은안과21병원도 119만원을 적립해 총 357만원을 어린이 재단에 전달했다. /김여울기자 wool@

오심, 이대론 안된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오심이 경기의 전부가 되고 있다. 잇단 오심이 승패를 좌우하면서 프로야구계 비디오 판독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심으로 뜨거운 그라운드 그 중심에 KIA가 있다. 지난 29일 챔피언스필드에는 SK의 타격쇼와 함께 오심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2회초 조동화의 도루 때 공이 먼저 2루에 안착하면서 태그가 됐지만 셰이프가 선언됐다.

넉넉한 아웃 타이밍이었지만 오심이 나오면서 KIA 선동열 감독이 항의를 위해 그라운드에 올랐다. 2회 말에는 애매한 ‘보상 판정’이 나왔다. 안치홍의 병살타 때 1루에서 셰이프가 선언됐다. 또 경기 도중 오심을 한 나광남 2루심이 건강상의 이유로 박근영 대가심으로 교체되는 등 어수선한 진행이 이뤄졌다.

LG에게 치명타를 맞고 돌아온 지난 주말에도 KIA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놓고 울었다. 2-3으로 역전을 허용하며 맞은 9회 마지막 공적, 2사 1·2루에서 필의 타구가 투수 봉준근 글러브를 맞고 뒤로 빠졌다. 급히 달려간 봉준근이 넘어지면서 1루에 송구를 했

배트에 맞은 공 몸 맞았다 ‘진루’ 도루 때는 태그 됐어도 ‘셰이프’ 결정적 순간마다 경기흐름 방해

고 아웃이 선언됐지만 1루수 김용의의 발이 떨어진 상태였다. 선 감독이 강하게 어필했지만 이미 었지리던 물, 결국 KIA는 1사 만루의 기회를 놓치고 아쉽게 짐을 싸야했다.

KIA는 홈 개막 3연전에서도 연속된 오심에 속을 끓였다. 특히 이대형은 오심의 희생양이 되면서 두 개의 안타를 도둑맞았다. KIA는 지난 시즌에도 삼성전 결정적 오심 이후 급격한 하락세에 빠졌다.

“올 시즌 그라운드에 자주 올라가고 있다”고 너털웃음을 터트린 선동열 감독은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 미국·일본이 구장 자체적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동하고 있

는 것에 비해 한국은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비디오 판독을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 KBO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로야구 현실상 방송국들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어서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당장 필요할 것 같다”고 오심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의 영웅한 판정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 또 지난 시즌부터 계속된 논란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진지하고



지난 29일 KIA의 안치홍이 SK 조동화의 도루를 저지했지만 셰이프가 선언됐다.

근본적인 상황 판단과 반성 및 대처가 시급하다. 700만 관중을 외치기에 앞서 경기의 질을 고민해야 한다.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기계의 힘이라도 빌려야 할 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